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영암왕인문화축제로 '농지은행' 홍보 부스 운영

- 농지이양은퇴직불·과원규모화사업 등 핵심 사업 맞춤형 현장 상담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6/04/09 [20:10: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영암왕인문화축제로 '농지은행' 홍보 부스 운영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 '농지은행'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농업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을 펼쳐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영암지사는 이번 홍보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농가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청년농업인 등에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보조금(월 50만원/ha)을 지급받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과수원 매입 및 임대를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집중 홍보 중이다.

행사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현장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사 방문이 어려웠던 농업인들도 축제를 즐기며 농지은행에 대한 궁금증이 한자리에서 해소되고 있다.

전지영 지사장은 “영암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찾아오는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며, “상담 인원이 현장에 늘 상주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맞춤형 지원 혜택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37)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일보 이 기사 주소 : <http://www.xn--6e0bx9yjva78vyyac9d.kr/6520>